

목포 초당산에 '황토 맨발길' 조성

세죽장·음수대·신발보관함 등 설치

목포시가 부주동 초당산에 황토 맨발길을 조성하는 등 명품숲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옥암신도시 심장부인 초당산(옥암유치원 옆, 부주과출소 건너편)에 맨발 트레일길 1km를 조성해 개통했다.

목포시의 맨발길 조성은 양을산 '맨발로 청춘길'에 이어 두번째다.

시는 초당산 맨발길에 세죽장과 음수대, 흙먼지 털이기, 신발보관함, 휴게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일상을 응원하는 감성 문구를 부착했다. 또 경사면에는 보랏빛의 맥문동 꽃과 왕벚꽃나무를 식재해 단조로운 숲길에 계절의 색깔을 입혔다.

초당산은 신도위의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시는 이번 맨발길 조성으로 주변 시민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쾌적하

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몸과 마음이 청년이 되는 '오감만족 맨발길 걷기 행사'를 갖고 맨발 길을 정식 개통했다.

지난 5월 중순 임시개통한 이곳은 아름다운 맨발 숲길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하루 200여 명이 찾는 인기 명소로 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옥암수변 뚝방길 1.0km, 양을산 편백향길 1.2km, 산정산 느릅길 1.5km, 대양산단 힐링길 1.5km, 대삼화도에는 무장애길을 조성해 건강한 맨발길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강진군-남미륵사,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 협약

내년 봄꽃 축제 기획... 300억 원 이상 경제 효과 기대

주차장 추가 확보·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운영 등 협력

강진군은 최근 세계 불교 미륵대종 남미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남미륵사와 내년 4~5월에 남미륵사 일원에서 서부해당화, 철쭉 등 봄꽃을 주제로 한 축제 개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군은 ▲축제 종합 및 홍보 수립 ▲진입도로 확·포장조기 추진 ▲주차장추가 확보 ▲주차 안내 및 주차료 징수 ▲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 관리 ▲지역특산물 및 먹거리 등 판매시설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미륵사는 ▲축제기간 사찰시설 개방 ▲탐방로 개방 등 강진군의 관광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반시설 조성 등 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남미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남미륵사 범홍스님은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남미륵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아미타불 불상이 있으며, 40년 동안 가평

은 50만 그루의 서부해당화와 1000만 그루의 철쭉이 봄철이 되면 장관을 이루며, 불자 이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강진의 명소이다.

군은 앞으로 기존 무료로 운영돼 오던 남미륵사의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주차료 만큼을 관광객들에게 강진사랑상품권을 증정해, 읍내권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남미륵사를 찾은 관광객은 약 300만 명으로 추정돼, 주차료 대신 들려주는 강진사랑상품권과 개인 소비액을 추산하면 약 3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은 2023년 4월 현재, 장미는 전국의 6.2%(전남의 69%)인 15.3ha를, 수국은 전국의 25%(전남의 91%)인 5.6ha를, 꽃작약은 전국의 80%(전남의 95%)인 24ha를 생산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꽃의 도시'이다.

군은 꽃의 강점을 관광객 유입의 핵심 요소로 녹여 넣기 위해, '애플프로젝트'를 통해 봄에는 유채를, 여름과 가을에는 수국과 구절초를 각각 피워 올려, 꽃향기 가득한 강진의 풍경으로 관광객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남미륵사는 동양 최대의 아미타불 불상과 서부해당화, 철쭉, 연꽃 등을 품은 아름다운 사찰이자 숨겨진 보물 같은 관광지"라며 "이번 협약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500만 명 유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견인차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 복지업무 공직자와 소통

목요대화로 읍면 맞춤형복지 현황 공유·애로사항 등 청취



우승희 영암군수가 지난 1일, 영암읍 달마복지센터에서 읍·면 맞춤형복지업무 담당 공직자들과 '목요대화'를 가졌다.

민선 8기 영암군의 혁신 시책 가운데 하나인 목요대화는, 우승희 군수가 매주 또는 격주에 다양한 직업·단체·계층의 군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

이날 대화에서 우승희 군수와 영암군 공직자 22명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에 따른 상호읍 맞춤형복지팀 신설, 2022년 9개 읍·면 간호직 공직자 인력배치 등의 내용이었다.

이어진 대화에서는 읍·면 맞춤형복지 담당자들의 업무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박진 덕민복지팀장은 인력 충원과 역량 강화를 건의했다. 그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사업 기획·추진 등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무를 감당하려면 인력 충원이 절실하고,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자격취득 기회 제공 같은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승희 군수는 "여러분의 애로는 함께 방법을 찾아 꾸준히 해결해 나가자. 주민주도 민·관협력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복지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과 읍·면의 복지현황을 조화롭게 하는 업무추진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신안, 일본 오부치 총리 마을과 상호 우호 교류 추진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일한

신안군은 일본 군마현 나카노조정과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상호 우호 교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한일 파트너십'이라고 불리는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도쿄 영빈관에서 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내각총리대신 시절에 채택됐다.

오부치 총리는 한일 외교사에 의미 있는 인물이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당사자로 과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한 것에 대해 직접적이고 분명한 표현을 사용해 사죄했던 인물이다. 2000년 재임 중 과로사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외국 정상 장례식에 참석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오부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군마현

나카노조정은 인구 14,624명이 살고 있다. 정(町) 주변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관광지로는 시마온천, 사와타리온천, 농업공원인 야쿠오엔, 가마계곡, 다케산 등이 있다.

박우량 군수는 "김대중-오부치의 공동선언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해 왔다"라며 "오부치 총리의 고향인 나카노조정에 우호 교류의 의향을 확인한 후 점진적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박정래 기자

해남, 고유의 맛과 전통 담은 '해남미남축제 특별관' 운영

해남군이 2023 해남미남축제에서 해남 고유의 맛과 전통을 담아낸 특별관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설하는 특별관은 해남의 향토 음식과 그에 담긴 이야기를 재조명한 음식관으로 조성된다. 해남8미와 특산물을 주재료로 한상차림을 개발해 먹거리 축제인 해남미남축제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특별관을 운영할 운

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증가음식, 마을음식, 이순신음식, 사찰(비건)음식, 기타(해남관연관된 음식) 총 5개분야, 3~5개 팀이다. 팀별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팀원 중 1명 이상은 최근 3년 이내 향토·전통음식 관련 전시회 또는 행사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운영팀은 향토 식재료 사용여부, 향토음식 원형 보존 가능성, 계승발전 필요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팀은 특별관 컨설팅을 포함한 푸드랩에 반드시 참여하여 해남미남축제 3일간 전시, 시연, 체험, 판매를 하는 특별관을 운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관 운영을 통해 해남미남축제의 미식 콘텐츠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지역 내 향토음식가들이 서로 결합하여 발전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진도보건소·진도교육청 '금연' 합동 캠페인 실시

진도군 보건소가 최근 진도교육지원청과 함께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담배연기 없는 살기 좋은 진도군'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라는 공동의 주제로 진도실업고등학교와 진도중학교 정문 일원에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등교시간인 7시 30분부터 두 기관이 모여 흡연 예방 문화조성과 금연 의식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연 홍보 팸플릿 배부와 흡연에 따른 질병 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또 철마광장부터 읍사무소까지 지역주민의 흡연·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한 단체 가두 행진을 실시해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진도군 보건소는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주간' 홍보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2행시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진도아리랑몰

www.jindoarirangmall.com

✓ 검색창에 진도아리랑몰을 검색하세요

✓ 쇼핑물에 접속한 후 상단에 회원가입을 하세요

✓ 진도아리랑몰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이벤트시 문자를 드리며, 이벤트 기간동안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진도군 홍보대사 **송가인**

오늘은 !!!

진도아리랑몰

Organic & Nature

우리가족 !!!

안심먹거리

Fresh food

신선한 식품

Natural food

자연 식품